



보도시점 2026. 4. 23.(목) 06:00
4. 23.(목) 석간

배포 2026. 4. 22.(수) 14:00

여름철 폭염·호우 사전 대응을 위한 축산재해대응반 가동 준비에 박차

- 취약 시설 사전점검 결과 및 대응계획 공유, 정부·관계기관·생산자단체 협력 강화
- 5월 중순 축산재해대응반 본격 가동 예정, 재해예보부터 복구까지 단계별 신속 대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올해 여름철 재해에 대비하여 4월 23일(목) 오후 4시 지방정부, 관계기관, 생산자단체 등과 함께 축산분야 사전점검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3월 25일~4월 17일간 실시한 재해 취약 축산시설 사전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올여름 폭염, 호우 등에 따른 축산분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관별 대응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난해에는 5월부터 이어진 이른 더위와 높은 습도로 6월 말 이후 가축 폐사가 급격히 증가하는 등 축산농가 피해*가 크게 발생하였다. 올해도 4~6월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73~82%로 전망**됨에 따라, 이른 시점부터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 가축 폐사 규모('25): (폭염) 약 201만 마리, (극한 호우) 약 191만 마리

** 기상청 기후예측모델 분석 결과('26.3.23. 발표 기준, 5~7월은 4.23. 발표 예정)

농식품부는 이번 회의에서 ▲취약 농가 중심 사전점검 및 현장 지도 지속, ▲여름철 가축·축사 관리요령 및 가축재해보험 가입, 고온 대비 장비 보급 등 적극 홍보, ▲피해 발생 시 신속 공유 및 긴급 수요 물품 사전 확보 등을 당부할 계획이다. 또한, 화재 및 온열질환 예방 등 종사자 안전관리 요령도 함께 전파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5월 중순부터 지방정부, 관계기관 및 생산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축산재해대응반’을 본격 가동하여 재해예보 전파부터 기술지원, 현장점검, 사후 복구지원까지 단계별로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이재식 축산정책관은 “사전에 취약 시설을 꼼꼼히 점검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것들을 미리 파악·준비하는 것이 재해 피해를 줄이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축산재해대응반을 중심으로 지방정부, 관계기관, 생산자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재해 발생 시 초동 대응부터 복구지원까지 빈틈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축산정책관실 축산정책과	책임자	과 장	신우식 (044-201-2311)
		담당자	사무관	김소연 (044-201-2317)